

르포 장흥~완도 해역 패속선 내일 취항 갈등 고조

‘생계 전쟁’ 남해 바다 일촉즉발

완도 어민 “양식장 보호 해상저지”

장흥군 “법적문제 없어 운항 강행”

해경, 항로표시 부표 훼손 지시 공무원 등 5명 수사

비취빛 바다는 완도와 장흥이 다르지 않았다. 미역과 다시마 채취를 앞두고 작업선에 몸을 맡긴 채 구슬땀을 흘리는 두 지역 어부들의 ‘꿈의 꿈’도 한결 같았다.

그러나 지금 양 지역민은 통상이 뭍이다. 장흥~제주간 2357급 패속선 ‘오렌지호’ 취항(2일)이 임박하면서 운항을 강행해야 한다는 장흥주민과 이를 결사저지하겠다는 완도주민 간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완도항에서 북동쪽으로 37km 떨어진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바다. 이날 완도쪽 바다는 완도 금일·약산 어민 등이 최근 오렌지호가 운항되면 생계에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법원에 제기한 ‘운항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탓인지 깊은 정적만 흘렀다.

그러나 이날 어두리 앞바다를 가득 메운 미역·다시마 양식장 주변은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패속선의 운항금지를 골자로 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선사측이 2일 예정대로 ‘오렌지호’ 운항 입장을 고수하자 완도지역 어민들은 해상시위로 불사하겠다는 입



지금도 평온하지만... 완도어민 2명이 지난달 29일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앞바다에 설치된 양식장에서 다시마를 끌어올리고 있다. 어민들 뒷쪽으로 장흥군 회진면 노력항에 정박 중인 패속선 ‘오렌지호’가 보인다.

m의 통나무로 만든 각배 50척을 3~4m 간격으로 띄워 두는 등 패속선 운항에 따른 해상 시위를 준비하고 있었다.

‘완도군 패속선 운항반대 추진위원회’ 박상래(58) 위원장은 “패속선이 운항될 경우 양식장 피해는 물론, 해안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등 우리(완도)만 피해를 입게 된다”며 “(주)장이 예정대로 운항될 경우 해상 저지 방법을 총 동원해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장흥군 관계자는 “완도

어민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패속선 운항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가 적합하게 이뤄졌음을 의미한다”며 패속선 운항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논란이 제기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항후 전문가에 의뢰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 개발이 뒤진 전남의 관광활성화 등을 위해 패속선 운항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완도 어민들이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을 기세인 데다 완도해경이

공유수면 관리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장흥군청 소속 공무원 심모(55)씨 등 5명을 조사하고 있어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해경에 따르면 심씨 등은 지난달 17일 오후 3시경 완도군 약산면 해상에서 설치된 미역·다시마 양식 면허 표시 부표를 김모(58)씨 부부에게 훼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정은조기자 ejchung@ /중부취재본부=김용기기자 kykim@

오늘 날씨 해돋이 05시 21분 해질 19시 51분 달뜨기 22시 35분 달짐 09시 36분

아침에 소나기 하루종일 구름이 많겠으며, 아침에 소나기 내리는 곳도 있겠다.

지역	날씨	기온
광주	한때비온후맑음	23/31℃
목포	한때비온후맑음	21/27℃
여수	구름맑음	21/25℃
완도	구름맑음	21/29℃
구례	한때비온후맑음	23/32℃
해남	구름맑음	21/30℃
장흥	구름맑음	21/30℃
고흥	구름맑음	20/28℃
순천	구름맑음	23/30℃
영광	한때비온후맑음	22/29℃
진도	구름맑음	21/29℃
전주	구름맑음	22/30℃
남원	구름맑음	21/30℃
목성도	한때비온후맑음	18/23℃

바다	풍향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0.5m	☀	🍷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금)	3(토)	4(일)	5(월)	6(화)	7(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23/29	23/27	23/27	23/28	22/29	21/28

9월 2일 수능 모의고사 EBS 60% 연계 출제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은 “2011학년도 대학수능능력 시험 모의평가를 9월2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11월 수능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을 파악해 난이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학습능력을 진단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영역이며 모든 분야는 수험생들이 임의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시험 문항의 60%는 EBS 수능 교재와 연계해 출제된다.

2011학년도 수능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이 모의평가에 응할 수 있으며 8월2일 예정된 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지원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15일까지이다. 재학생은 다니는 학교에, 졸업생은 출신 고교 또는 학원에,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주소지 관할 79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된다.

응시수수료는 재학생은 무료, 재수생은 1만2000원이다. /연합뉴스

환영선반 WELCOME TO HANJIN **순천시의리 강도**

엘도라도리조트

Travel Innovation Hand Cartery

초대형 여객선, 빈도-여수 3시간

새 타고 제주올래?

문의전화 **1688-2100**

www.hanjinexpress.co.kr